



## 낯은 것이 좋아

잠을 잘 때 편안해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 ‘침대는 과학이다.’ 라는 광고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옷은 인간 피부의 보조 보호대 역할을 하면서 또한 사회적인 위치와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것처럼 민초들과 차별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의 풍자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탄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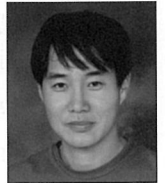
편안함으로 보면 옛날 우리 조상님들 서민 한복에 비길 것이 많이 없으리라 본다. 특히 양반들이 입는 까실 까실한 비단천이 아닌 서민이 입던 무명천의 옷은 깨끗하면 나들이 옷이고 더러우면 작업복으로 언제나 전천후 변환사용이 가능했으니 이 어찌 편안한 옷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물들

도 단별로 사니 편안하게 보이지만 계절 따라 약간씩 털 두께와 치밀도가 달라져야 그 계절을 잘 견딜 수 있다. 누추하게 군데군데 빠지고 더러운 털을 가진 것들은 동물사회에서도 당연히 배척을 당한다. 동물학에서 ‘정직한 광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동물들의 겉모습은 결코 과장되거나 꾸밈없이 자기 현재 모습을 거의 투명하게 그대로 반영한다는 이론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동물들과 오랫동안 생활해 온 나 역시 사람들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사니 누구에게 좋게 보일 일도 없고 늘 낯고 편안한 옷을 선호한다. 가끔 방송국 같은 데서 촬영을 할 때 할 수 없이 그림상 예의상 가운을 걸치기도 하지만 끝나면 “에이!” 하고 곧바로 벗어버린다. 가운은 병원처럼 사람 상대하면서

### 최종욱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부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겐 유니폼처럼 편리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에겐 불편하기 그지없는 옷이다. 첫째 불편은 남의 눈에 확 띠는 것, 어떤 사람들은 특별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입기도 하지만 나의 경우는 괜히 주목받는 게 영 어색하다. 둘째는 동물들이 싫어한다는 것, 거의가 단색이고 흰색 혹은 진한 색 계통인 가운은 조금이라도 잡티가 튀면 바로 태가 나버려 세탁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들과 친해지는 냄새가 배겨들 여유가 없다. 특히 일부 가운은 백색을 돋보이기 위해 유난히 합성섬유를 많이 쓰다 보니 나같이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뿌지직' 하는 정전기로 고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낡은 옷의 효용은 집에서 입다가 낡아진 헌 옷들 대충 가져다 입으니 경제적이고 또 평상복이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안 빨았다고 흠 잡힐 일 없으며, 대충 갈아입기만 하고 잘 안 빠니 동물냄새가 배겨서 동물들과 친근해 지는 데 단단히 한 몫을 한다. 물론 연식이 지극하신 분은 아예 그 냄새가 피부에 배겨지는 경지에 까지 올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복(뭐 그것도 작업복과 별 차이는 없다.) 벗고 냄새나는 작업복으로 무장하면 그리 편안할 수가 없고 무슨 일든지 할 각오가 새로이 생겨난다. 나름대로 간지가 난다고 자기착각

자연스레 배겨서 동물들과 친근해 지는 데 단단히 한 몫을 한다. 물론 연식이 지극하신 분은 아예 그 냄새가 피부에 배겨지는 경지에 까지 올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복(뭐 그것도 작업복과 별 차이는 없다.) 벗고 냄새나는 작업복으로 무장하면 그리 편안할 수가 없고 무슨 일든지 할 각오가 새로이 생겨난다. 나름대로 간지가 난다고 자기착각

에 빠져 들기도 한다. 동물원에서는 별로 그런 일 없지만 목장에서 너무 소가 많아 항상 진창 맡을 때마다 보면 아침에 입은 작업복이 그야말로 똥 투성이가 돼버린다. 어찌든 그 날은 그런대로 깨끗하여 대충 털고 저녁 먹으러 나갔더니 식당에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해버려 미안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대동물 진료하시는 분들은, 늘 겪는 수의사들만의 고뇌의 한 부분 일 것이다. 이상하게 바깥에서는 관찮았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맡아 보봐도 정말 지독하긴 지독했다.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상징과 권위가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인상도 남겨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상 가운, 수술복 등으로, 업무에 따라 구분 짓는 꽤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산다. 하지만 수의사는 단별인 동물들과 비슷하게 몸에 편안한 질의 무채색의 좀 낡은 듯한 한 벌 복장이 더 어울린다. 어찌면 의사와 수의사의 이런 차이가 바로 남의 눈을 유독 의식해야 하는 사회적인 사람과 대개 털로 평준화된 동물들의 차이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고객과 비슷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시장은 흔히들 사람상대 장사라 하기 때문에 그건 차치로 한다. 그렇다고 동물이라고 전혀 특징이 없는 건 아니고 암. 수간에도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일부 무리 짓는 숫 원숭이나 침팬지들 사이에 우두머리 대장의 털이 다른 녀석들의 털과 달리 하얗게 새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화이트 백' 이라고 부른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우리 사람들과 참 비슷하다. 사람이 동물과 비슷한 건지, 동물이 사람과 비슷한 건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물음처럼 가끔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 fin~ ♡

